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89
----------	-------

발의연월일 : 2019. 11. 5.

발 의 자 : 김현권 · 김철민 · 황주홍
오영훈 · 손금주 · 윤준호
이양수 · 손혜원 · 경대수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

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제27조).

법률 제 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방치하여서는”을 “내버려두어서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치한”을 각각 “내버려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①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u>방치하여서는</u> 아니 된다. ②·③ (생략)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① ----- ----- ----- ----- ----- ----- <u>내버려두어서는</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u>방치한</u> 자 2. (생략) ② 과실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u>방치한</u>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① ----- ----- ----- ----- -----. 1. ----- ----- ----- <u>내버려둔</u> ----- 2. (현행과 같음) ② ----- ----- ----- <u>내버려둔</u> ----- ----- -----.